

〈아기탄〉에 나타난 언어유희(pun) 양상과 작가의 창작 의도

고정희* · 구본관**

- I. 문제 제기
- II. 시적 기법으로서의 언어유희
- III. 〈아기탄〉의 언어유희 양상
- IV. 입후(立後) 문제와 〈아기탄〉의 창작 의도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19세기 사대부 작가 구강(具康, 1757~1832)의 〈아기탄〉에 나타난 언어유희(pun) 양상을 분석하고, 작가의 창작 의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아기탄〉은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여러 ‘아기’를 가져와 언어유희를 만드는데, 이때 ‘아기’의 언어적 지위는 ‘축소’의 파생 접미사에서 온 것, 재분석한 언어 단위, ‘아기’를 가져다 붙여 새로운 단어 내지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 작가는 ‘아기’라는 소리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집풀아기[지푸라기]”처럼 ‘한없이 저속한 사물’과 ‘사람의 아기’를 짝짓는다. 이를 통해 ‘아기[後嗣]’를 너무 중대하게 생각하여 무자(無子)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입후(立後) 제도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의 친자를 입양 보내고 절절히 그리워하는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기’를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후사인 ‘아기’를 중요시 여기는 내면의 모순된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아기탄〉은 유교 사회 체제에 대한 전복적인 문제

* 제1저자,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

** 교신저자,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

의식을 지닌 사대부 작가의 자기모순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대표작 <북새곡>과 상통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구강(具康), <아기탄>, 언어유희, 아기[後嗣], 입후(入後) 제도,
<북새곡>

1. 문제 제기

이 글은 19세기 사대부 작가 구강(具康, 1757~1832)의 <아기탄>에 나타난 언어유희(pun) 양상을 분석하고, 작가가 이러한 언어유희를 구사한 의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구강이 45세 때 회작으로 지었다¹⁾고 알려져 있는 <아기탄>은 “아기도 만코만타 아기아기 무슨아기/ 빠지면서 우는 아기 사름아나 웃는아기/ 삼일만의 뺏긴아기 돌잡힐적 기는아기”로 시작하여 “시뻘아기”, “집풀아기”, “검불아기”, “조물아기”, “비슬아기”, “실올아기”, “빨아기”와 같이 ‘아기’라는 말이 들어 있는 단어들을 끊임없이 나열하는 작품이다. 2음보를 한 구로 봤을 때, 작품의 총 92구 가운데 91구에 ‘아기’가 나온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아기’에서 시작하여 ‘아기’로 끝나는 작품인 것이다.

18세기 중인 작가 안도환의 <만언사>에 나오는 이른바 ‘다리타령’에서도 ‘귀양다리’라는 말에서 촉발되어 동음이의어인 ‘다리[脚/橋]²⁾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제법 길게 나타난다.³⁾ 하지만 이 작품에 나열된 ‘다리’는 서울에 실재하는 교각들로, 서울에서 답교놀이 하던 기억을 환기하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다.⁴⁾ 그에 비해 <아기탄>의 “웃는 아기”와 “집풀아

1) 강전섭, 『남호 구강의 <북새곡>에 대하여』, 『한국학보』 제18권 4호, 일지사, 1992, 199면.

2) ‘사람이나 동물 아래 붙은 신체 부분’을 가리키는 ‘다리[脚]’와, ‘물을 건너기 위해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만든 시설물’을 가리키는 ‘다리[橋]’는, 중세 국어에서 각각 ‘다리’, ‘드리’로 형태가 다른 말이었고, 현대의 국어사전에서 다른 표제어로 처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음이의’ 관계이다.

3) <만언사>의 작가는 이본에 따라 안도원, 안조원, 안조환, 안도는 등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최근 『조선왕조실록』에 의거해 조선 정조 때 대전별감을 지낸 안도환(安道煥)으로 확정되었다.(장정수 역, 『조선 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21, 105면.)

기”는 ‘아기’라는 ‘공통된 소리가 서로 다른 의미를 함께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언어유희(pun)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⁵⁾

구강은 『북새곡(北塞曲)』이라는 가사집에 <아기탄>을 비롯하여 총 14편의 가사를 남긴 작가이다.⁶⁾ 그의 작품들은 참신한 발상과 다채로운 표현, 당대 사회의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한 점에서 가사를 혁신한 성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⁷⁾ 이러한 평가는 가사집과 동일한 제목의 가사 <북새곡>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북새곡>은 구강이 57세 때 함경도 암행어사로 나간 경험을 대화체를 사용하여 묘미 있게 그려 낸 장편 가사로, 몇 차례 심도 있는 작품론이 이루어졌다.⁸⁾ 그에 비해 <아기탄>은 “여러 양태의 아기를 열거한 데 그친” 여기적(餘技的) 소품이라거나,⁹⁾ <북새곡>을 창작하기 위한 습작이요 전주곡이었다는 평가에 그치고 있다.¹⁰⁾ <아기탄>의 언어유희는 이 작품을 진지한 창작 의식의 소산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아기탄>의 언어유희에 대해서 “아기를 갖고 싶은 바람을 희화화시켜 나타내는 그의 재치와 언어적 뛰어남을 살펴볼 수 있

-
- 4) 이에 대해서는 정인숙, 『<만언사>에 나타난 자전적 술회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146~159면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 5) 언어유희(pun)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리들이 두 가지(혹은 그 이상의) 의미들을 함께 불러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Alex Preminger and Terry V.F. Brogan eds., “pun”,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1005.)
 - 6) 『북새곡(北塞曲)』을 처음으로 소개한 서봉식은 작품의 원소장자인 능성 구씨 후손들이 전하는 바에 따라 이 작품을 구강의 첫째 부인인 심씨(1756~1839)의 작품으로 소개하였으나, 이후 강전섭이 문헌 고증을 통하여 본 가사집의 작자가 구강임을 밝혀낸 바 있다.(서봉식, 『북새곡』 해제, 『향토연구』 제10집, 충남향토연구회, 1991; 강전섭, 앞의 글, 1992.)
 - 7)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제3권, 지식산업사, 2005, 348~352면에서 구강의 <북새곡>을 중심으로 다루며 <제석탄>, <교주별곡>, <진회곡>, <기수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지만 <아기탄>은 언급하지 않았다.
 - 8) 박요순, 『구강의 <북새곡> 특성과』, 『어문연구』 제25집, 어문연구회, 1994; 이형태, 『<북새곡>의 표현방식과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최미정, 『<북새곡>에 나타난 북관의 풍경과 관직자의 감성』, 『한국학논집』 제5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 9) 박요순, 『한국고전문학 신자료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2, 27면.
 - 10) 강전섭은 구강이 18세 때에 지은 <황계별곡>을 비롯하여 22세 때의 <회주가>, 24세 때의 <동호별곡>, 36세 때의 <제석탄>, 38세 때의 <등등가>(한문가사, 7언 70구), 45세 때의 회어가사 <아기탄> 등은 “아마도 <북새곡>을 창작하기 위한 습작이요 전주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강전섭, 앞의 글, 1999면.)

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¹¹⁾ 그 언어적 뛰어남의 정체를 해명하는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기탄>에 나타난 언어유희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유희(pun)는 서로 다른 의미들의 놀라운 짝짓기(coupling)를 통해 두 단어 사이에 기대하지 않은 연결을 만드는 시적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연결들은 개념들의 경계를 흐리고, 경계들을 변형하도록 위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Christian)’과 ‘크레틴(Cretin)’이 함께 짝지어지는 순간, ‘크리스찬’과 ‘바보’의 경계가 흐려지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권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¹²⁾ 이를 참조하면 <아기탄>에서 후사(後嗣)를 뜻하는 ‘아기’가 “집풀아기”와 짝짓기 될 때,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흐려지고 변형되는지를 세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어유희를 통해 도전한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구강이라는 작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구강은 당대 사회의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한 작가이다.’라는 조동일의 평가 이래로, 연구자들은 구강이 보여 준 상충되는 의식들에 주목해 왔다. 이형대는 <북새곡>에서 구강이 “(암행어사로서) 체제 수호의 최전선에서 역설적이게도 그 내부로부터 무너져 가는 봉건 관료 체제 전반의 모순을 목도하게 되어 유자적 관념으로 그려 왔던 당위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깨닫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³⁾ 최미정은 구강이 환폐(還弊)에 시달리는 북관민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경멸하고 북관민의 개선 요구를 부당한 것으로 일축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선 사회가 북관민에게 그어 놓은 감성의 분할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 주었다고 평가하였다.¹⁴⁾

<북새곡>이 환폐 등을 중심으로 유교 관료 체제 내부의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한 작품이라면, <아기탄>은 입후(立後)라는 조선 후기의 광범위한

11) 천혜영, 『구강의 가사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9~54면.

12) Jonathan Culler, “The Call of the Phoneme: Introduction”, Edited by Jonathan Culler, *On Puns: the foundation of letters*, Oxford & New York: B. Blackwell, 1988, p.2.

13) 이형대, 앞의 글, 251면, 255면.

14) 최미정, 앞의 글, 273~301면.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적장자가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동생의 집에서 양자를 들이는 입후 제도는 16세기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¹⁵⁾ 그런데 이 제도에 따라 차남 이하 가계에서 아들을 형에게 출계시키고 자신은 무후(無後)가 되는 역설이 초래되기도 하였다.¹⁶⁾ 구강도 전실 소생의 아들을 맏형에게 양자로 보내고,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아기가 없어 후사가 끊길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¹⁷⁾ <아기탄>은 바로 이때 창작된 작품이다. 입후 제도의 역설을 몸소 체험한 구강이 사회적·개인적으로 중대한 문제였던 ‘아기’를 소재로 언어유희를 시도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이하의 장들에서는 <아기탄>에 나타난 언어유희 양상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 숨겨 놓은 작가의 의도를 탐구하고, 그것이 <북새곡>에서 보여 준 문제의식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시적 기법으로서의 언어유희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언어유희(pun)를 “유머러스한 효과를 위해 한 단어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의미(또는 관련성)를 암시하도록 사용하거나,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즉 단어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 이에 따라 (A) 단어의 다의성(polysemy)을 이용한 언어유희와 (B) 단어들의 동음이의성(homonymy)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구분할 수 있다.¹⁹⁾ 이 가운데

15) 정경식, 『조선시대의 가계계승법제』,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2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90면.

16) 한상우, 『조선 후기 양반층의 입후(立後) 양상과 전략적 계자(繼子) 선택』, 『조선시대사학보』 제73집, 조선시대사학회, 2015, 294면.

17) 이후 구강은 첩을 통해 서자를 얻었지만 사촌에게 출계시키고, 다시 동생의 아들을 얻어 후사를 잇는 등, 입후 문제와 관련하여 복잡한 경험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8) “pun”,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www.oed.com/view/Entry/154549?rskey=CmKlMA&result=1&isAdvanced=false#eid>.

19) 권오숙, 『헛릿의 말놀이 연구』, 『세익스피어 비평』 제38권 1호, 한국세익스피어학회, 2002, 6면.

언어유희(pun)의 전형으로 꼽히는 것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으로,²⁰⁾ 『프린스턴 시학사전』에서는 “pun”을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리들이 두 가지(혹은 그 이상의) 의미들을 함께 불러 모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²¹⁾ <아기탄>에서도 ‘아기’라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시적 기법으로써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아기탄> 분석에 참고하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pun)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시적 성취를 거두고 있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애도의 구름이 왜 여전히 햇빛에게 걸려 있는지’를 묻는 숙부 클로디아스에게 햇빛은 자신이 정반대로 “너무 햇빛(sun) 속에 있다.”라고 대답한다. ‘햇빛(sun)’은 ‘아들(son)’이라는 단어와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두 단어의 연결을 통해 햇빛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 ‘아들(son)’이라는 지위를 빼앗은 숙부에게 도전한다. 이 같은 언어유희는 위트의 낮은 종류가 아니라 시적 언어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다.²²⁾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는 피흘리며 죽어가는 머큐시오가 “내일 나를 찾아오면, 무덤 속에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Ask for me tomorrow, and you shall find me a grave man.)”라고 언어유희를 한다거나, 원래 재미있는 여인이 아닌 맥베스 부인이 다음과 같이 언어유희(pun)를 한 데 주목한다.

If he do bleed (그가 피를 흘리면)

I'll **gild** the faces of the grooms withal; (시종들의 얼굴에 발라줄 거예요.)

For it must seem their **guilt**. (그들 죄로 보여야 하니까.)²³⁾

이 장면은 맥베스가 덩컨 왕을 살해하고 단검을 든 채 나타나자 맥베스

20) Jonathan Culler, *op.cit.*, p.4.

21) Alex Preminger and Terry V.F. Brogan eds., *op.cit.*, p.1005.

22) *Ibid.*.

23) 원문은 Jonathan Culler, *op.cit.*, p.8에서, 번역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최중철 역, 『맥베스』, 민음사, 2004, 48면에서 인용.

부인이 왜 단검을 가지고 왔냐고 책망하면서 자신이 덩컨 왕의 피를 시종들에게 발라서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도 맥베스 부인은 ‘gild’가 동일한 음소를 포함한 ‘guilt’라는 단어를 불러오는 언어유희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러한 언어유희는 맥베스 부인의 발언 의도와는 무관하며, 그녀 자신도 자기가 이와 같은 언어유희를 하게 될 줄은 말하는 순간까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언어란, 말하는 주체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나름의 물질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조나단 켈러는 셰익스피어의 언어유희가 언어에 대한 현대적 생각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즉, ‘의미는 언어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효과일 뿐이며, 그것은 불안정적이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²⁴⁾

키어 엘람(Keir Elam)은 언어유희가 한번 시작되면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자기 번식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초기 희극 <사랑의 헛수고>인데, 이 작품에서는 자기-광고적인 언어의 조류에 의해 플롯과 행위가 잠수되고 있다.²⁵⁾ 즉 이 작품은 뚜렷한 플롯이 없이 등장인물들이 치고받는 입씨름으로 전개되는 작품으로, ‘위대한 언어의 잔치’ 혹은 ‘단어를 가지고 까불고 노는’ 작품이라고 불린다.²⁶⁾ <사랑의 헛수고>의 5막 2장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은 “light”라는 단어가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점을 이용해서 입씨름을 한다.²⁷⁾

캐 더 린: ...옛말에 마음이 **가벼우면(light)** 장수한다잖아.(...for a light heart lives long.)

로잘라인: 이것 봐라, **무심한(light)** 말에 무슨 검은 뜻이 숨어 있지 않을

24) Jonathan Culler, *op.cit.*, pp.5~8.

25) Keir Elam, *Shakespeare's Universe of Discour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1~32, pp.114~176. 키어 엘람은 셰익스피어의 언어유희는 플롯과 행위를 본질로 삼는 비극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6) James L. Calderwood, “Love’s Labour’s Lost: A Wantoning with Words”,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Vol.5: No.3, Houston: Rice University, 1965, pp.317~332.

27) 스티븐 울만은 같은 단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들이 서로 간에 명백한 관련이 없을 정도로 소원해질 때, 그 단어는 다의성이 아니라 동음이의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의 대목을 “light”의 동음이의에 의한 말장난으로 분석한다.(Stephen Ulmann, 남성우 역, 『의미론: 의미과학입문』, 탑출판사, 1988, 245~265면.)

까?(What's your dark meaning, mouse, of this light word?)

캐 더 린: 검은 얼굴의 미인은 **출랑댄다는(light)** 거지.(A light condition in a beauty dark.)

로잘라인: 그 검은 속을 알아내려면 **환한 불빛(light)**이 있어야겠어.(We need more light to find your meaning out.)

캐 더 린: 그렇게 성을 내면 그 입김에 **춧불(light)**이 꺼지니 그만 입씨름은 어두운 데 묻어 두지.(You'll mar the light by taking it in snuff; Therefore I'll darkly end the argument.)

로잘라인: 그래 네가 하는 짓은 빛이든 어두운 데서만 하는구나.(Look what you do, you do it still i'th'dark.)

캐 더 린: 너야 그렇지 않지. 엉덩이가 **휘휘 들떠있으니까(light)**.(So do not you; for you are a light wench.)

로잘라인: 그야 너처럼 무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볍지(light)** 뭐야.(Indeed, I weigh not you; and therefore light.)²⁸⁾

인용 부분에서 “light”라는 소리는 ‘마음이 가볍다’, ‘무심하다’, ‘출랑댄다’, ‘환한 불빛’, ‘춧불’, ‘엉덩이가 휘휘 들떠있다’로 계속해서 다른 의미로 바뀌어 간다. 몰리 M. 마후드(Molly M. Mahood)는 “light”라는 단어에 대한 반복된 입씨름이 이 연극의 중심 주제라고 지적한다. 그 중심적인 주제란 ‘단어들은 재치 있는 반쪽임만 있을 뿐, 어떤 무게나 실체도 없다.’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언어에 부여된 모든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²⁹⁾ 심미현은 이 작품에서 기지와 재치에 넘치는 여성 인물들의 언어를 통해 남성 언어의 허구성에 대한 풍자와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³⁰⁾ 파울라 블랭크(Paula Blank)는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몇몇 르네상스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언어적 풍요’ 혹은 ‘언어적 열정’은 왕의 언어를 정규 언어로 삼으려고 했던 언어 표준화 작업에 대한 반

28) 번역문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신정옥 역, 『사랑의 헛수고』, 전예원, 1989, 123~124면, 원문은 William Shakespeare, Barbara A. Mowat and Paul Werstine eds., *Love's Labor's Lost*, Washington, D.C.: Folger Shakespeare Library, pp.150~151에서 인용.

29) Molly M. Mahood, *Shakespeare's Wordplay*, London & New York: Methen, 1979, pp.175~176.

30) 심미현, 『『사랑의 헛수고』에 나타난 남성 언어의 허구성과 유포된 해피엔딩』, 『경성대학교 인문학논총』 제13권 1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71면.

작용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³¹⁾

한편 비극 작품인 <햄릿>에 나오는 언어유희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햄릿의 반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극적 장치이자, 숙부 클로디어스에 대한 반항과 복수를 수행하는 ‘언어 행위’가 된다. <햄릿> 2막 2장에서 폴로니어스가 햄릿에게 “안으로 드시겠습니까?(Will you walk out of air?)”라고 묻자, 햄릿은 “out of air”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공기 밖으로, 즉 죽음으로’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내 무덤으로 말시오?(Into my grave?)”라고 되묻는다. 여기서 ‘air’를 동음이의어 ‘heir’로 본다면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하는 것(out of heir)’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날카로운 언어유희가 된다. 햄릿의 언어유희는 상대가 사용한 기의에서는 일탈하지만 시종일관 이치에 맞는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내 보여 준다.³²⁾

이상에서 시적 기법으로 사용되는 언어유희는 단순히 낮은 수준의 유희나 작가의 언어적 재치를 뽐내는 장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생산성과 물질성을 지닌 언어유희를 도구로 삼아 사회적 규약이나 기대에 대한 저항을 표출할 수 있다.

III. <아기탄>의 언어유희 양상

<아기탄>의 구조는 서사(제1행~제10행), 본사(제11행~제38행), 결사(제39행~제46행)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는 “아기도 만코만타 아기가기 무순아기/ 빠지면서 우는아기 사름아나 웃는아기/ 삼일만의 뺏긴아기 돌잡힐 적 기는아기”로 시작한다. 태어나 삼일 지나고 돌이 되고, 젓먹고 밥먹는 아기의 성장 과정을 따라 아기를 나열한 후, 으뜸아기와 말째아기, 남의 아기와 우리 아기, 시골 아기와 서울 아기, 안은 아기와 엮은 아기, 엮은 아기와 찡긴 아기, 나물꽃처럼 피어난 아기와 검은콩 조린 듯이 쭈굴쭈굴한 아기³³⁾ 등, 사람 아기의 여러 양태를 열거한다. 본사는 “이아기 모양조타 일

31) Paula Blank, *Broken English: Dialects a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Renaissance Writing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6, pp.5~6.(권오숙, 앞의 글, 7면에서 재인용.)

32) 위의 글, 7면.

33) “나물꽃 피는아기 검은콩 조린아기”라는 원문을 두 구의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 위와 같이

흠만흔 여러아기”로 시작하여 ‘아기’라는 소리가 들어간 26개의 단어를 나열하는데, 이 부분에 언어유희가 집중되어 있다. “어려서 집날아기”로 시작하는 결사는 다시 사람의 아기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사에 나오는 ‘아기’가 사람의 아기와 의미적 상관성이 있음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본 장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본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³⁴⁾

이아기 모양조타 일흠만흔 여러아기
 풋남기 시외아기³⁵⁾ 썩족혹온 아기로다
 묵은논의 집풀아기 허소혹온³⁶⁾ 아기로다
 부역아리 검불아기 슈션스런 아기로다
 빵창스이 문지아기³⁷⁾ 구년묵은 아기로다
 더쪽의 가늘아기 쌀족스런 아기로다
 조희의 보풀아기 부푸러는 아기로다
 훈구석의 조물아기 작거리논³⁸⁾ 아기로다
 여러조각 바슬아기 뜰어담을 아기로다
 더털 " " 돛뻬아기³⁹⁾ 다히여진 아기로다
 나풀 " " 실올아기 허트러진 아기로다
 묵은밭희 뵈출아기⁴⁰⁾ 징검거름 아기로다
 저문물 빙쌀아기⁴¹⁾ 둥싯쓰는 아기로다
 모진풀에 마들아기⁴²⁾ 쌀가라온 아기로다

해석해 보았다.

- 34) 원문은 두 개의 구끼리 묶어 상단과 하단에 배치하는 귀금체로 되어 있다. (『향토연구』 제10집, 235~237면). 본고에서는 가사 형식에 맞게 두 개의 구를 한 행으로 제시한다. 원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 경우, 기존의 현대어역(서봉식, 앞의 글, 144~145면) 및 고어와 방언을 참조하여 현대어역을 주석으로 제공한다.
- 35) ‘시외아기’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풋나무에 새로 돋어난 새순’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36) 허소(虛疏)한(비어서 허술한) 아기로다.
- 37) 쌍창(雙窓) 사이 먼지아기.
- 38) 해독이 미상임.
- 39) 더털더털(?) 도떼기(?). ‘더털더털’은 의태어로 보이나, ‘돛뻬아기’는 의미 파악이 어려움. 현대 국어 사전에 나오는 ‘도떼기’일 수도 있으나 판단하기 어려움.
- 40) 묵은밭의 배추라기.
- 41) 저문 물의 배따라기
- 42) 모진 풀에 마들가리(?). ‘마들’은 나무의 가지가 없는 줄기. 헤어진 옷의 솔기 등을 가리키는 말. ‘마드가리’가 5가지의 다른 의미를 가지는 동음의어이지만 어느 경우도 여러 방언에서

미오씨는 발아기라 잘게삼긴 아기로쇠
역겨달닌 실아기라⁴³⁾ 시루죽은⁴⁴⁾ 아기로쇠
몹시구은 솔아기라⁴⁵⁾ 기우둥이⁴⁶⁾ 아기로쇠
설게민든 발아기라⁴⁷⁾ 앓고앓흔 아기로쇠
틈의씨인 뽕아기라⁴⁸⁾ 싹 〃 흥온 아기로쇠
초가집의 놀아기라 아니뜨은 아기로쇠
현것뜨든 올아기라 덩혈격이 아기로쇠
쇼곤속다 이야기라 쇼상쨌은 아기로쇠
간난흔집 되아기라⁴⁹⁾ 조민스런⁵⁰⁾ 아기로쇠
괴로올손 조아기라⁵¹⁾ 암상흥온⁵²⁾ 아기로쇠
짜가올손 뽕아기라⁵³⁾ 발촉흥온 아기로쇠
션살구 썬아기라⁵⁴⁾ 츄마션 아기로쇠
덜살문 조아기라⁵⁵⁾ 몹시쁜 아기로쇠⁵⁶⁾
이러저러 흥온아기 세상의 보물아기

을격적으로 볼 때, 하나의 구를 이루는 2음보 중 둘째 음보는 대체로 4음절로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3음절어는 “솔아기라”처럼 ‘리’를 추가해서 사용하였다. 첫째 음보도 가급적 음수를 4개로 맞추기 위해 ‘오’⁵⁷⁾ 등으로 음

‘아기’를 가지는 경우는 없음. 따라서 일단은 의도적으로 ‘아기’를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함.

43) 위어 달린 시래기라.

44) 시르죽은. ‘시르죽다’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다.’라는 뜻.

45) 몹시 굵은 솔[松]아기라. ‘굽다[曲]’가 불규칙 동사가 아니므로 ‘구은’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활용형만 보면 ‘(불에) 굽다’일 가능성도 있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굽다[曲]’가 유력하다.

46) 기우똥한 것.

47) 설게(?) 만든 바라기라.

48) 틈에 끼인 썰기라. ‘썰기?’는 ‘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들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는 물건’을 가리킴.

49) 가난한 집 되[升]아기라.

50) 조민(蹢躅)한. ‘조민’은 ‘마음이 조급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다.’의 뜻.

51) 괴로운 것은 조아기라. ‘조아기’는 해독 미상이나 지시 관형사 ‘조(>조)’가 결합한 ‘조 아기’일 수도 있을 듯하다.

52) 암상헌(생이 많은?).

53) 따가운 것은 썰기라. ‘썰기?’는 ‘썰기나방의 애벌레’를 가리킴.

54) 신 살구매기라.

55) 덜 삶은 조[粟]아기라.

56) 몹시 쓴 아기로쇠. ‘조[粟]를 덜 삶아서 쓴맛이 난다.’는 뜻으로 보임.

수를 늘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사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은 ‘○○아기’의 ‘기’로 끝나고, 중간에 끼어 있는 26행 가운데 13행은 ‘다’로, 13행은 ‘쇠’로 끝나는 정확한 대칭구조를 볼 수 있다.⁵⁸⁾ 즉 첫 구가 ‘○○아기’로 끝나는 전반 13행은 ‘아기로다’로 끝맺고, 첫 구가 ‘○아기라’로 끝나는 후반 13행은 ‘아기로쇠’로 끝맺는 규칙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즉흥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의도에 의해 치밀하게 짜여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민요와의 장르적 습합을 지적한 것처럼,⁵⁹⁾ ‘○○아기’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형태는 ‘○○타령’이라는 제목을 지닌 민요들을 연상시킨다.⁶⁰⁾ 이 가운데 <아기탄>과 가장 유사한 노래는 <곡물타령>이다. <곡물타령>은 “빛이 붉어 대추콩/ 알록달록 피마자콩/ 울콩돌통 청대콩/ 이팔청춘 푸르대콩/ 독수공리 홀아비콩/ 빛이검어 검정콩/ 아롱다롱 강남콩”⁶¹⁾처럼 ‘수식어구+○○콩’을 반복하는 양상이 “묵은논의 집풀아기” 등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기탄>은 ‘수식어구+○○아기’ 다음에 “허소호은 아기로다”와 같이 앞에 나온 ‘아기’를 평가하는 2개의 음보를 첨가한 것이 민요와는 다르다. 또한 민요에서는 ‘강남콩’처럼 원래 있는 단어를 가져오거나, ‘홀아비콩’처럼 명사에 ‘콩’을 붙여 새로운 단어 내지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양상이 주를 이룬다면, <아기탄>에서 ‘아기’가 출현하는 양상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

국어학적으로 볼 때 ‘아기’의 언어적 지위는 ① ‘여러 아기’의 ‘아기’와 같

57) “뽕족호은”, “허소호은”, “뽕뽕호은”, “암상호은”, “호은아기” 등이 그 예이다. ‘오’가 다른 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이 어휘들에서 높임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오’를 중세 국어나 일부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객체 높임의 ‘오’와 관련시키기는 어렵다. 중세 국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랑흙다”<법화 2:111>와 같이 형용사 파생 접미사 ‘비’이 결합된 것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58) ‘-다’(-라)와 ‘-쇠’는 상대 높임의 등분도 다르지만 작품의 변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듯이 보인다.

59) 이형대, 앞의 글, 237면.

60) <옛타령>은 “줄기쫄기 참쌀엿/ 하박하박 사탕엿/ 울통불통 대초엿/ 서간도라 서속엿/ 강원도라 감-엿/ 능나도의 고구마엿”과 같이 ‘○○엿’을 나열하며(임동권 편, 『한국민요집』 제1권, 집문당, 1961, 217면), <범벅타령> 역시 “이월이라 사라기범벅/삼월이라 축범벅/ 사월이라 수리치범벅/ 오월이라 느취범벅”과 같이 ‘○○범벅’을 나열한다.(위의 책, 제2권, 집문당, 1974, 577면.)

61) 위의 책, 제2권, 593면.

이 명사인 것, ② “뺨아기”⁶²⁾의 ‘아기’처럼 명사의 일부로서 재분석한 경우가 아닌 것, ③ ‘보풀아기’처럼 ‘명사+아기’ 구성의 ‘축소’의 파생 접미사에서 온 것, ④ ‘조물아기’를 ‘조물+아기’로 하는 것과 같이 재분석한 언어 단위, ⑤ ‘몬지아기’처럼 명사 ‘몬지[먼지]’에 ‘아기’를 가져다 붙여 새로운 단어 내지 새로운 표현을 만든 것, ⑥ ‘가출아기’처럼 고어나 방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이 어려운 것⁶³⁾ 등으로 구분된다.⁶⁴⁾ 이 가운데 ③, ④, ⑤에서 작가의 의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유희 양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③ “집풀아기”, “검불아기”, “보풀아기”, “실올아기”, “피출아기”, “빨아기”, “올아기”의 ‘아기’는 원래 ‘축소’의 파생 접미사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에서 축소 접미사는 ‘-아지, -아기, -아리, -앙이’와 같이 명사를 어기로 하여 다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들로, ‘축소’나 ‘경멸’ 등의 의미를 더한다. 이 가운데 ‘-아기’는 중세 및 근대 국어에서 ‘동물의 새끼’를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축소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지만, 작은 동물이나 식물 등 사물 명사 뒤에 그 명사를 확장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였다.⁶⁵⁾ 19세기에는 분철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단어 안에서 생산성이 높지 않은 파생 접미사를 분철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보풀아기”, “실올아기”, “피출아기”, “빨아기”, “올아기”는 ‘아기’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철로 보아야 할 듯하다.

④ “조물아기”, “바슬아기”, “빚아기”, “실아기”, “발아기”, “놀아기”, “이야기”는 ‘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언어 단위를 재분석한 예이다. 재분

62) “뺨아기[췌기]”는 중세 국어의 ‘쇠아기’를 고려하면 원래 ‘아기’가 있는 단어로, 특별히 재분석하거나 분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63) 분석이 어려운 예에는 “시뻘아기”, “가출아기”, “똥아기”, “마들아기”, “뺨아기”, “돌지아기”, “뱃알아기” 등이 있다.

64) ‘아기’의 언어적 지위의 구분은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제4권(옛말과 이두), 『우리말샘』 등의 고어와 방언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①은 분명히 명사로 확인되는 경우이고, ②는 ‘아기’가 포함된 단어로 쓰이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③은 ‘아기’에 선행하는 단어가 확인되므로 ‘아기’를 접미사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④는 ‘아기’에 선행하는 단어가 분명하지 않아 재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⑤는 선행하는 요소와 아기가 결합한 전체 형태가 확인되지 않아 작가가 새롭게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⑥은 현재의 언어 자료로 명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예이다. 고어 자료나 방언 자료가 더 확인된다면 일부 단어에 대해서는 이런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65) 구분관, 『축소 접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제34집, 국어학회, 1999, 109~136면.

석은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형태의 구조를 다른 구조로 파악하려는 심리적인 경향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분석이 적용되면 언어 형태의 구조적인 경계가 일시적으로 재생성된다. 이렇게 언어에 새로운 구조를 들여오으로써 기존의 화자가 말한 것을 엉뚱하게 듣는 데서 기존의 구조와의 불일치를 통한 유머가 생겨난다.⁶⁶⁾ “조물아기”는 “조물”이 단어로 쓰이는 예가 없고 의미도 명확하지 않아 ‘아기’를 분석해 내기 어려운데, 재분석을 통해 “조물”과 “아기”로 분석한 것이다. “바슬아기” 역시 “바슬”이 명확하지 않아 ‘바슬+아기’의 분석이 어려운데, 재분석에 의해 ‘아기’를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배따라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배따라기(<배떠나기)<←배+떠나+-기’로 분석하고 있다. 이 어원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재분석의 예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작은 바리때[小鉢]를 지칭하는 ‘바라기’를 ‘발+아기’로 분철한 것도 형태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분석의 예가 된다. “놀아기[노래기]”는 근대 국어의 ‘노략이’, ‘놀이’가 나오지만 ‘-아기’를 분석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재분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이야기]”나 “실아기[시래기]”도 이미 단일어화가 되어 ‘이+아기’, ‘실+아기’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을 일종의 재분석을 통해 ‘아기’라는 소리를 떼어 내고, 이 ‘아기’를 사람의 아기와 연관시켜서 언어유희를 하고 있다.

⑤ “몬지아기”, “솔[松]아기”, “되[升]아기”는 이미 존재하는 명사에 그냥 ‘아기’를 가져다 붙여 새로운 단어 내지 새로운 표현을 만든 예이다. 이 단어들은 옛말이나 방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작가가 창의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작가는 다양한 언어적 지위를 가지는 ‘아기’를 사용하여 다른 작품에서 보기 어려운 언어유희의 극단을 보여 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바, 통제하기 어려운 자기 번식적인 속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언어유희의 이면에 아기에 대한 작가의 목소리가 들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서 ‘아기’가 붙은 단어들이 매우 작고 하찮은 사물들의 이름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보풀아기’처럼 ‘보풀’이라는 그 자체로 하찮은 사물에

66) 구현정, 『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 제248집, 한글학회, 2000, 178-179면.

더 작은 것을 나타내는 ‘축소’의 파생 접미사를 붙이게 되면 폼퐁의 의미가 더해진다.⁶⁷⁾ 여기에 ‘부풀었다’, ‘허소(虛疏)하다[허술하다]’, ‘구년 묵었다’, ‘수선스럽다’, ‘기우동하다’, ‘조민스럽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더해져서 ‘아기’의 가치는 더욱 낮아진다. 예를 들어 “묵은논의 집풀아기 허소흐은 아기로다”에서는 그냥 지푸라기도 아니고 오래된 논에 버려진 지푸라기로, 허술하여 돌아볼 가치가 없는 사물을 의미한다. 이는 “묵은밭희 뽕출아기 징검거름 아기로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래 내버려 둔 ‘묵은밭’⁶⁸⁾에 나타난 메추라기가 징검걸음으로 다니는 모습을 희화화한 표현이다. “뚝오 씨은 딸아기라 잘게 삼긴 아기로다”를 보면 그냥 싸라기가 아니라 ‘매우 쪼어 아주 잘게 생긴 아기’를 말한다. “부억아리 검불아기 슈션스런 아기로다”에 나오는 ‘아기’도 매우 하찮은 존재이다. ‘검불’은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다. 부억 아래 검불이라고 했으므로 아궁이에서 태우는 마른 풀이나 낙엽을 의미한다. 바싹 말라 그 자체로 불품없는 검불이 불에 타 어지럽게 날아오르는 모양을 ‘수선스러운’ 아기라고 표현하였다. “몹시 구은 솔아기라 기우둥이 아기로다”에서는 몹시 굵어서 기우뚱하게 서 있는 작은 소나무를 가리킨다. “가난혼집 되아기라 조민(躁悶)스런 아기로다”에서는 가난한 집의 쌀 되박을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선살구 썩아기라 츠마싹 아기로쇠”에서는 ‘아기’가 ‘차마 시어 못 먹겠는 싹 살구때기’와 같이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역거달닌 실아기라 시루죽은 아기로다”에서 ‘아기’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엮어 달린 시래기’ 같이 불품없는 모습으로 비하된다.

이러한 비하는 “쌍창(雙窓)스이 문지아기 구년묵은 아기로다”나 “초가집의 놀아기라 아니꼬은 아기로쇠” 등에서 극대화된다. 여기서의 ‘아기’는 ‘두 창문 사이에 끼어 있는 구년 묵은 먼지아기’로, 한없이 사소하고 쓸데없는 존재이다. ‘건드리면 둥글게 말리고 고약한 노린내를 풍기며, 햇볕을 싫어하고 주로 습기가 많은 낙엽 밑이나, 초가지붕에 많이 사’는 노래기는 보기

67) 이와 더불어 아주 작은 사물에 대한 애잔한 연민도 더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68) ‘묵은밭’은 『우리말샘』에 따르면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을 의미하는 ‘묵정밭’의 평북 방언이다.(『묵은밭』,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_top=query&query=%EB%AC%B5%EC%9D%80%EB%B0%AD)

에도 흉측하고 냄새도 고약하여 아니꼬운 존재이다. 여기서의 ‘아니꼽다’는 ‘비위가 뒤집혀 구역날 듯하다.’⁶⁹⁾의 뜻으로 쓰인 듯하다.

가문을 잇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후사로서의 ‘사람의 아기[兒]’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이러한 아기를 ‘구년 묵은 먼지’나 ‘아니꼬운(비위를 뒤집는) 노래기’와도 연결시키는 언어유희는 자못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음성적 듣기에서는 ‘Bore(지루함)’와 ‘boar(수돼지)’처럼 의미상으로 전혀 동일하지 않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주장함으로써, 비동일성에 대항한다.⁷⁰⁾ <아기탄>의 언어유희는 ‘아기’라는 소리의 공통점을 도구로 삼아 당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아기[後嗣]’와, 매우 하찮거나 무용하거나 심지어 혐오스러운 사물 사이의 경계를 무화시켜 버린다.

언뜻 보면 <아기탄>은 가문 계승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기’를 ‘수선스럽고, 기우똥하고, 꺾끄럽고, 답답하고 괴로운 존재일 뿐 아니라 몹시 사소하고 쓸데없는 존재이며 심지어 달갑지 않은 존재’로 폄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온갖 사소하고 쓸데없는 ‘아기’들을 나열한 후에 “이러저러 혀은 아기 세상의 보물아기”라고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는 이와는 정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저러한 아기’를 ‘세상의 보물아기’로 높여서 후사인 ‘아기’와 등가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 둘이 완전히 등가적인 존재가 되면, 역으로 지푸라기, 보푸라기, 실오라기, 헛웃 오라기, 너무 신 살구때기가 없다고 삶이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듯이, 무자(無子)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없는가 하는 진복적인 질문이 가능해진다.

IV. 입후(立後) 문제와 <아기탄>의 창작 의도

사람의 ‘아기’가 노래기나 신 살구때기에 불과하다면 아기의 부모 역시 그 어떤 권위도 가지기 힘들다. <아기탄>은 결사에서 “아기아비 희올아비 아기어미 술취어미”라는 난센스적 언어유희를 가져온다. “희올아비”와 “술

69) 『표준국어대사전』 「노래기」, 「아니꼽다」 참조.

70) Françoise Meltzer, “Eat Your Dasein: Lacan’s Self-Consuming Puns”, Edited by Jonathan Culler, *op.cit.*, p.162.

취어미”도 그렇게 분석할 수 없는 말을 ‘히올+아비’, ‘술취+어미’로 재분석하여 언어유희 효과를 노린 것이다. ‘술지게미’를 뜻하는 ‘술취어미’는 아들을 못 낳아도 내칠 수 없는 ‘조강지처(糟糠之妻)’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히올아비”와 마찬가지로 소리의 공통점에 주목한 난센스적 단어로 보는 것이 전체 맥락에 어울린다. 즉 ‘아기’가 구년 묵은 먼지처럼 하찮기 때문에 ‘아기 어미’도 술지게미처럼 하찮은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종법제가 확립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아기[兒]’, ‘아기아비’, ‘아기어미’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무게와 책임감이 결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단어들에 ‘먼지아기’, ‘해오라비(해오라기)’, ‘술지게미’가 되는 난센스의 세계에서는 ‘아기’, ‘아비’, ‘어미’라는 단어를 그렇게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난센스는 언어의 풍부한 의미는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규칙을 전복하는 역할을 한다.⁷¹⁾ 이 장에서는 구강이 전복하려고 한 당대 사회의 규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무자(無子)와 자기 번식적인 언어의 대조

<아기탄>은 가사집 『북새곡』에 신유년(1801년)에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능성구씨세보』에 의하면 구윤빈의 셋째 아들인 구강이 전실 부인인 청송 심씨에게서 아들 양원(陽元)을 얻은 해는 1776년이었다.⁷²⁾ 양원을 만형인 응(膺)에게 보낸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작품 속에 “어려서 집날아기 [어려서 집 날(나갈) 아기]”라는 구절을 참고하면 어릴 때 양자로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79년에 청송 심씨가 사망한 뒤 고령 신씨를 후배(後配)로 맞이하였으나, 고령 신씨는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다. 1801년 <아기탄>을 창작할 당시 구강은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태였다.

이때 구강의 심경은 18세기 장편가문소설 <완월희명연>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⁷³⁾ 정씨 가문의 장자 정잠 부부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아버지인

71) 이수진, 『루이스 캐럴의 언어게임-앨리스 이야기를 중심으로』, 『근대영미소설』 제12권 1호,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2005, 2~4면.

72) 능성구씨대동보편찬위원회, 『능성구씨세보』 제5권, 능성구씨대중회, 1986, 656면.

정환은 “만손자를 보지 못하는 한이 구천에 맺힐 것 같소.”(42면)라고 고통을 토로하고, 정잠은 “조상에게 죄”(45면)를 지었다며 한스러워한다. 그러다가 동생 정삼의 아들 인성을 양자로 정하고 정잠은 “마음속 근심이 오늘부터 사라질 것이다.”(56면)라며 기뻐한다. 정잠의 사촌 동생인 정흠도 아들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정잠의 후처 소교완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 인중으로 양자를 정하자 “가문의 번성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고 제가 죽은 후의 일도 걱정 없으니,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297면)라고 말한다.⁷⁴⁾ 이러한 소설 속 인물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작가 구강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치부될 수 없는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양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타개한 데 반해 <아기탄>은 언어유희의 자기 번식성에 힘입어 수많은 기상천외한 아기를 낳는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집풀아기, 몬지[먼지]아기, 보풀아기, 시뻘아기, 검불아기, 가출아기, 조물아기, 바슬아기, 실올아기, 빗쌀아기[배따라기], 쌀아기, 솔[松]아기, 돛뻘아기[도떼기], 피출아기[메추라기], 마들아기, 실아기, 발아기[바라기], (틈의씨인) 뽕아기[췌기 2], (헌옷의) 올아기, 되아기, (짜가울손) 뽕아기[췌기 3], 조[粟]아기, 놀아기[노래기], 이야기[이야기], (피로울손) 조아기, 선살구 뽕아기[신 살구떼기]”와 같이 26가지 하찮은 사물들을 ‘아기[兒]’라고 주장하고 있다. 햄릿이 ‘언어 행위’를 통해 숙부에 대한 복수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구강 또한 ‘언어 행위’를 통해 아기 생산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기탄>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한다는 핑계로 수많은 ‘아기’를 낳고 있는 난센스를 통해 구강이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입후(立後) 제도에 대한 암시적 비판

세익스피어와 몇몇 르네상스 작가들이 언어유희를 통해 당대의 언어 표

73) <완월회맹연>과 같은 작품들은 분량을 고려하여 ‘국문장편소설’, ‘대장편소설’, ‘대하소설’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제재를 고려하여 ‘가문소설’, ‘가족사소설’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분량이 긴 작품 중 가문의 후사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참고하므로 분량과 제재를 함께 고려한 ‘장편가문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74) 완월회맹연 번역연구모임, 『현대역 완월회맹연』 제1권,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2의 면수를 본문에 표시했다.

준화 작업에 대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어의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소리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언어 자체의 힘을 빌렸기 때문이다. <아기탄>도 통제할 수 없는 언어의 힘을 빌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후계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후 제도를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아기탄>의 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어려서 집날아기 즈라서 돌지아기
빨디업는 아기рода 싹근머리 마을아기
너코너훤⁷⁵⁾아기рода 슈비단 비알아기

“어려서 집날아기”는 ‘어려서 집 날(나갈) 아기’, 즉 어릴 때 남의 집에 출후(出后)시킨 아기를 의미하는 듯하다. “즈라서 돌지아기”의 “돌지아기”는 분석이 어려운 단어인데 작품의 창작 배경을 참고하면 자라서 내 집으로 들어온 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서 집날아기 즈라서 돌지아기” 다음에 이어지는 “빨디업는 아기рода 싹근머리 마을아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도치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려서 집날아기 즈라서 돌지아기”가 “빨디업는 아기рода”로 읽히고, 도치로 해석하면 “싹근머리 마을아기”가 “빨디업는 아기рода”로 읽힌다. 다음 행인 “너코너훤 아기рода 슈비단 비알아기”를 도치법으로 보게 되면 앞의 행과 대구를 이루게 된다. “싹근머리 마을아기”는 태어난지 백일이 되어 배넛머리를 깎은 마을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슈비단 비알아기”는 해석 미상인 구절이나 앞 행과의 대구를 고려했을 때 “슈비단”은 돌잡이에게 입힌 ‘수(繡)놓은 비단(緋緞)’⁷⁶⁾ 정도로 추정되고, “비알아기”⁷⁷⁾는 ‘숙에 품은 아기’ 정도로 추정된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전통 사회에서 백일이나 돌을 맞은 아기는 마

75) 뇌(惱)하고 뇌(惱)한. ‘뇌하다’는 분석 미상이나 ‘뇌(惱)하다’로 풀이함.

76) 한국의 출산 풍속 가운데 백일에 배넛머리를 깎고, 돌잡이에게 돌 옷을 만들어 성장(盛裝)시키는 풍속이 있었다. 돌 주머니 앞면에는 모란과 국화를 수놓고, 뒷면에는 수(壽)와 복(福)을 수놓았다고 한다.(김은주·전정미, 『한국 산속(産俗)의 변화 과정 탐색을 통한 유아교육적 의미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3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2, 214~215면.)

77) 중세 국어의 ‘비숲’<법화경언해 2:105>을 고려하면 ‘비알’은 ‘뱃살’, ‘속마음’, ‘창자’ 등을 떠올릴 수 있으나 해석이 매끄럽지 않다. 또한 ‘알’을 가지고 ‘배 아과 낳은 아기’로 분석한다면 이는 너무 멀리 간 해석이라는 문제가 있다.

을 아기든지 내 속에 품은 아기든지 축복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들 아기를 “빨디업는” “뇌(腦)코 뇌(腦)흔” 아기라고 말하여 충격을 준다.

‘쓸데없는’이라는 말은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아(女兒)처럼 후사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지칭하는 데 쓰였다.⁷⁸⁾ 특히 계후 갈등을 다룬 소설에서 이미 양자를 들인 뒤에 뒤늦게 태어난 친생자가 양자 때문에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말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⁷⁹⁾ 이들 소설에서는 오직 가문을 빛낼 뛰어난 자질을 지닌 양자만이 ‘쓸 데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데 <아기탄>은 가문을 빛내기 위해 보내진 아이도, 들여온 아이도 모두 ‘쓸데 없는 아기’라고 평함으로써,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후사로 삼아 중사를 빛내야 한다는 논리⁸⁰⁾를 혼돈다.

18·19세기에는 아들이 없으면 동종(同宗)의 지자를 입후하여 가계를 계승시키는 방식이 양반층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는데, 이러한 입후는 성리학적 가족 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었다.⁸¹⁾ 성리학적 가족 질서란 종법제를 가리킨다. 종법제는 종법이 확립되면 친족들이 화목해지고 나아가 조정의 권위도 저절로 서게 되며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 송유(宋儒)들의 이념을 구현한 제도로서, 종자(宗子)와 지자(支子)를 구별하고 종자에게 불가침의 권위를 부여한 제도였다.⁸²⁾ 조

78) <엄씨효문청행록>을 보면 장자 엄백진의 부인 최부인이 아들 낳기를 바라더니, “무용(無用)흔 녀아를 심하니, 인달오를 니끼지 못허더라”라고 서술되어 있다. 엄백진은 “무용흔 삼너를 두고 부인이 년급스십(年及四十)이라”고 말하면서 셋째 동생의 신생아로 계후를 정한다.(최길용 교주, 『(교감본) 엄씨효문청행록』 제1권, 학교방, 2016, 15면.)

79) <성현공숙열기>에서 임한주의 후처로 들어온 여부인이 아들을 낳았으나, 양자 임희원의 지위가 굳어져 자기 모자만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김수봉 역·주해, 『성현공숙열기』 제1권, 한국학술정보, 2010, 115면.) <완월회맹연>에서도 양자 정인성으로 인해 후처인 소교완이 낳은 장자 인중이 “무용한 몸(것)이 되”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김진세 편, 『완월회맹연』 제3권, 서울대출판부, 1988, 22면; 같은 책, 제6권, 1989, 211면, 316면.)

80) <완월회맹연>에서 정점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양자 정인성을 계후자로 세우려 한 이유도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이를 종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53면.) <엄씨효문청행록>에서도 양자가 “가히 문호(門戶)를 영창(榮昌)하고 조선(祖先)을 현달(顯達)한 인재임을 강조하였다.(최길용 교주, 앞의 책, 121면.)

81) 한상우, 『『계후등록(繼後贈錄)』과 죽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의 특징』, 『고문서연구』 제51집, 한국고문서학회, 2017, 189~196면.

82) 정공식,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24면.

선 중기부터 종법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갖춘 사림파가 정치 일선에 나섬에 따라 ‘부계친족집단의 형성, 가계 계승에서 여성의 배제, 남녀 차별 상속, 향촌사회의 분화와 가문의 중시, 장자(長子)의 단독 가계 계승’ 등의 경로를 거치면서 조선 후기에는 가계 계승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⁸³⁾

16세기 중엽까지는 제사도 가계 계승보다는 사후 봉양의 의미가 강했는데 후기로 갈수록 사후 봉양의 의미는 쇠퇴하고 가계 계승의 의미가 전면에서 등장하였다.⁸⁴⁾ 문제는 ‘적장자에게 제사를 계승할 후사가 없을 때 누가 계승하여야 하는가’였다. 조선 전기에 행해졌던 형망제금(兄亡弟及)은 동생이 형을 대신하기 때문에 장차 적장자의 위패가 가묘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첩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면 신분이 비천한 첩자를 종자로 받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에 비해 동생의 아들, 즉 동종지자(同宗支子)를 양자로 삼는 입후는 적통 계승의 대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여겨졌다.⁸⁵⁾ 구강의 집안에서도 여러 대에 걸쳐서 형제지간에 양자를 보내고 들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구강의 조부인 구택규의 둘째 아들 윤명은 구택규의 형인 구몽규의 집으로 양자로 들어갔다. 구강의 만형 응(鷹, 1741년 생) 또한 부친 구윤빈의 친자는 아니었다. 구윤빈은 친생자인 도(度, 1753년 생), 강(康, 1757년 생), 영(廣, 1767년 생)을 낳기 전에 만형인 윤옥(允錫)의 둘째 아들 응을 입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⁶⁾ <아기탄> 창작 당시 작가는 후사가 끊길 위험에 처해 있었고 만약 이대로 후사가 없다면 아들을 다른 집에서 들여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실제로 <아기탄>을 창작한 다음 해인 1802년에 구강은 첩의 아들 직원(稷元)을 얻었지만 사촌인 경(慶)의 집으로 양자 보낸다. 이후 구강은 동생 영(廣)의 아들 길원(吉元)을 입양하였다.⁸⁷⁾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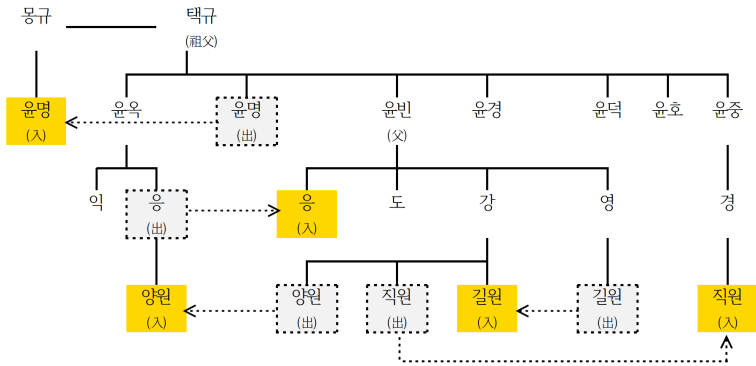
83) 이창기,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제106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122면.

84) 정궁식, 앞의 글, 2010, 92~93면.

85) 이창기, 앞의 글, 122면.

86) 능성구씨대동보편찬위원회, 앞의 책, 제4권, 958~959면.

87) 위의 책, 제5권, 654~659면.



사대부인 구강은 성리학적 가족 질서인 종법제의 취지를 따라야 할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서도 대대로 이루어져 왔던 입후 제도를 드러내 놓고 비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작가는 그저 “묵은논의 집풀아기”로부터 차마 시어 못 먹겠는 “선살구떼기”까지 이러저러한 아기를 ‘세상의 보물아기’로 높이고, 귀함 받아 마땅한 사람의 아기는 오히려 “빨터업논” “뇌(腦)코 뇌(腦)흔 아기”라고 하여 둘의 가치를 언어의 세계에서 전도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결사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추론해 보기로 한다.

아기아비 희올아비 아기어미 술취어미
 나흔아기 이젓혀라⁸⁸⁾ 놀달문 아기런고
 넷아기 엇터턴고 이제야기 꺾흠소냐
 짜근아기 양덕쥬요 큰아기 공문거라
 이제야니 크고적고 넷아기만 흐고지고

“아기아비 희올아비 아기어미 술취어미”라는 난센스 속에는 아기 부모를 “희올아비”와 “술취어미”라고 부르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피로움을 애써 잊고자 하는 자조적인 슬픔이 느껴진다. 다음 행인 “나흔아기 이젓혀라 늘

88) “이젓혀라”의 해석도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고어에 나타나는 ‘비슷하다’의 뜻을 가지는 ‘이섯혀다’ <두시언해 16:71>가 있음을 고려하여 ‘비슷하다’ 정도로 해석해 둔다.

달문 아기런고”는 ‘낳은 아기 비슷하랴 누구를 닮은 아기런고’로 풀이된다. 두 행을 연관시켜 읽으면 ‘해오라비와 술지메미가 낳은 아이가 누구를 닮은 아기런고’가 되어 완전한 난센스가 된다. 이미 서사에서 “낯서다 남의아기 눈늑다 우리아기”라고 하였듯이, 작가의 속뜻은 친생자를 입양 보내 ‘남의 아기’⁸⁹⁾가 되어도, 친부모를 닮은 모습은 바꿀 수 없다는 데 있다. 닮지도 않은 낯선 남의 아기를 억지로 자기의 아이로 삼는 입후 제도에 대한 비판은 “넋아기 엇더턴고 이제아기 궂홀소냐”에서도 감지된다. 작가는 이 말이 입후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지 않도록 ‘양덕조와 공문거’의 전고를 끌고 와 자신이 말하는 “옛 아기”는 바로 이들이라고 주장한다.

“자근아기 양덕조요 큰아기 공문거라”는 『삼국지』 23회에 나오는 예형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허도(許都)에서 세력을 키우던 조조는 독설을 일삼는 기인 예형을 형주자사 유표에게 보내 그의 투항을 받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형의 조롱에 기분이 상한 유표는 예형을 자기 부하이자 강하태수인 황조에게 보낸다. 술자리에서 황조가 예형에게 허도(許都)에 쓸만한 인물이 누가 있는지 묻자 예형이 “큰아이 공문거와 작은아이 양덕조가 있는데, 이 두 아이를 제외하면 달리 인물이 없다.(小兒楊德祖, 大兒孔文學, 除此二人, 別無人物)”라고 대답하였다.⁹⁰⁾

예형이 ‘작은 아이’라 일컬은 양덕조는 계륵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양수이다. 양수는 재주가 비상하여 매번 조조의 속을 훤히 읽어 내는 바람에 조조에게 미움을 받다가 군심을 미혹시켰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고 만다. 이때 양수의 나이는 불과 34세였다.⁹¹⁾ ‘큰 아이’라 일컬은 공문거는 공자의 20대손이자 건안칠자(建安七子) 중 한 명인 공융(孔融)이다. 공융 또한 여러

89) <완월회맹연>에서 아이의 입양을 두고 “아이가 벌써 남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인공이의 어미가 알지 못하니 이는 불가한 일이다.”라는 표현이 나온다.(완월회맹연 번역연구모임, 앞의 책, 296면.)

90) 나관중, 모종강 정리, 송도진 역, 『(정사 비교 고증 완역판) 삼국지』 제2권, 글항아리, 2019, 80~81면.

91) 한중에서 유비와 격전을 치르며 패전을 거듭하던 조조는 군사를 진격하고 싶어도 마초의 방어에 막혀서 여의찮고, 거두어 돌아가자니 촉병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었다. 때마침 상에 올라온 닭백숙을 보고 ‘계륵(鷄肋)!’이라고 외쳤는데, 이 말을 전해 들은 양수는 “계륵이라는 것은 먹기에는 먹음직한 고기가 없으나 그냥 버리자니 아깝다”라는 뜻이라며, 조조가 회군할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군사들로 하여금 행장을 꾸리게 했다가 처형당했다.(위의 책, 제4권, 303~322면.)

서부터 총명하였으나 성격이 강직하여 수차례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다. 조조가 유비와 유표를 정벌하러 가려고 할 때 만류하려다 실패하고 나서 “어질지 못한 이가 어진 이를 치고 있으니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한 말이 조조에게 전해져서 부인과 두 아들까지 모두 처형당하고 만다. 이때 공융의 나이는 56세로 알려져 있다.⁹²⁾

작가는 “이제아니 크고적고 넷아기만 호고지고”라고 하면서 “넷아기”가 ‘작은 아이 양수’와 ‘큰 아이 공융’임을 표나게 강조하였지만⁹³⁾, 양수와 공융이 결국 조조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환기한다면 작가가 바라는 아기가 과연 이 두 사람과 같은 인물인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다. “집풀아기”나 “보풀아기”와 같은 아기는 세상의 보물아기라고 하면서 사람의 아기는 쓸데없고 괴로운 아기라고 했던 작가였기에, 대단원에 와서 세삼 역사에 이름을 남긴 두 인물을 지향하는 것이 이치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넷아기 엇던턴고 이제아기 굿홀소냐”는 앞서 살핀 “나혼아기 이젓호라 늘 달문 아기런고”와 의미상 상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넷아기”는 만형의 집으로 양자 보낸, 작가를 닮은 친자를 의미한다. 새로 낳은 “이제아기”가 친자라고 해도 양자 보낸 “넷아기”와 같은 아기는 아니다. 둘째 부인이 새로 아기를 낳든지, 또는 다른 집에서 양자를 들이든지 그 아기가 “크고적고” 간에 “넷아기만 호고지고”라는 바람을 표명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작가가 이처럼 입양 보낸 친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언어유희 속에 감추어 둘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조선 후기 사대부 가문에서 아들을 입양 보낸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놓고 표출할 수 없었다. 입후 제도의 의미는 종통을 수립하는 데 있었는데 친부모에 대한 사사로운 정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개의 통(統)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⁹⁴⁾ 하지만 <엄씨효문청행

92) 위의 책, 제2권, 531~549면.

93) 선형 연구에서도 “넷아기만 호고지고”가 ‘공문거와 양덕조’와 같은 훌륭한 아기를 낳고 싶은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94) 양자로 들어간 사대부들은 생모에 대한 그리움을 공식적으로는 펼치지 못하고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비지문이나 행장·제문 등의 사적인 표현 매체를 통해 조심스레 풀어 놓을 수 있었다.(이은영, 『한문 산문에 투영된 어머니-18세기 팔모(八母) 복제(服制) 담론과 어머니 관련 글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122~147면.)

록>과 같은 장편가문소설에서는 만형 엄백진이 친자를 낳자 동생 엄백경이 형에게 양자로 들인 자기 아들의 과양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난다.⁹⁵⁾ 엄백경은 입양 보낸 친자를 그리워하는 자기 부부의 마음을 “망즈산(望子山)의 살오는 탄(歎)”으로 표현하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천륜지애(天倫之愛)”, “인정상니(人情常理)”라고 일컫고 있다.⁹⁶⁾ 이를 보면 아무리 종법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따르던 사대부의 입장에서도 친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구강의 집안처럼 가계 계승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아기를 주고받는 일을 번거롭게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는 친부모를 연쇄적으로 양산하게 된다. 작가가 사람의 아기를 “뇌(惱)코 뇌(惱)혼 아기”라고 한 이유는 입후 제도도 인해 남이 되어야 했던 부모와 자식이 겪는 고통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양자를 들인 집에서는 입후한 후에 친자가 태어난 경우, 의리를 중시하여 양자를 계후자로 유지할 것인지 혈통의 끝림에 따라 친자로 바꿀 것인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서는 계후자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친자에게 봉사를 맡기는 시속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⁹⁷⁾ 조선 후기 장편가문소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계후 갈등을 주요 모티프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 작품이 양자의 계후권을 인정하는 사대부들의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⁹⁸⁾ 혈연을 이유로 이 제도에 반발하는 사람은 악인으로 형상화되고,⁹⁹⁾ 이들은 결국 교화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95) 이현주,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엄씨효문청행록〉, 〈성현공숙열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2집, 한민족어문학회, 2012, 462면. 이 논문은 셋째 동생의 차자를 양자로 삼고 과양 가능성을 언급한 〈엄씨효문청행록〉이 다른 두 작품보다 선행하는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96) 최길용 교수, 앞의 책, 120~122면. 이 작품에는 애초에 엄백경 부부가 친자를 만형 엄백진에게 양자로 보내면서 근심하고 슬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같은 책, 17~19면.)

97) 이민정, 『조선 후기 가계계승 연구-입후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5면.

98) 박영희, 『18세기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갈등의 의미-〈성현공숙열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208면; 이현주, 앞의 글, 460면.

99) <완월회맹연>의 소교완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잠의 후처 소교완은 혈연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양자 정인성을 제거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른다. 구선정은 이 작품이 “정씨가문을 창대하게 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인물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정잠과 혈연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소교완의 대결을 그려 소교완을 ‘나쁜 피(毒血)’로 규정하면서 양자를 중심으로 한 입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하

몇몇 작품에서 입후를 둘러싼 형과 아우의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갈등은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소종은 희생해도 된다고 보는 의식에 따라 형제가 화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¹⁰⁰⁾

비록 언어유희 속에 감추어 두었지만, 작가가 입양 보낸 친자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면서 새로 얻는 아기가 ‘옛 아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출한 것은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소종은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당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어긋난다. 작가는 ‘아기’라는 말이 들어간 언어유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야기 모양조차 일흠만흔 여러아기”라고 하여 자신이 지금부터 아기를 명명할 것임을 예고한다. 아무리 작은 것도 작다는 이유만으로 큰 것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는 생각은 작가가 수많은 아기를 명명하는 방식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면적으로는 폄훼의 뜻을 지닌 ‘축소’의 파생 접미사를 붙여서 ‘아기’의 가치를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풀’보다 더 작은 ‘보풀아기’를 명명해 내어 그러한 존재도 눈에 띄게끔 만든다. ‘쪼물+아기’와 같이 과잉 분절화를 통한 의도적인 재분석은 축소 접미사의 결합으로 보기 어려운 ‘아기’를 표면으로 끌어내어 주제 의식을 심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몬지아기’처럼 명사에 ‘아기’를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경우는 모든 사물을 ‘아기’로 보려는 작가의 내면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단어를 새롭게 만드는 행위는 표현론적 단어 형성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 행위자의 명명 욕구에 기인한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아기’나, 언급할 가치도 없는 ‘신 살구매기’ 같은 사물들을 명명하려고 애쓰는 데서 이 작고 약한 존재들에 대한 각별한 연민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작은 아기들이 작다는 이유로 ‘보물아기’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이는 소종(小宗)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친자를 형에게 보내고 ‘옛 아기’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지자(支子)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후 제도는 인지상정에 어긋난다는 점 외에도 근본적 역할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문의 존속을 위한 종법제가 또 다른 가계의 단절을 만드

였다.(구선정, 『조선 후기 여성의 윤리적 지향과 좌절을 통해 본 가문의 정의』, 『고소설연구』 제47집, 한국고소설학회, 2019, 35면.)

100) 장시광, 앞의 글, 159~173면.

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¹⁰¹⁾ 즉 차남 이하 가계에서 자신의 후사를 형에게 출계시키고 자신은 무후(無後)가 되는 경우가 나타났던 것이다. 『경국대전』에서 종자(宗子)가 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한 경우에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입후하게끔 명시한 것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본래 장자는 해당 가문을 승계할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입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는 종가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타인의 장자를 입후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¹⁰²⁾ 구강 또한 자신의 장자를 형에게 입양 보내고 정작 자기 자신은 아들이 없어서 무후(無後)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아기탄>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기탄>에서 ‘수선스러운 아기’, ‘부풀은 아기’, ‘갈죽스러운 아기’, ‘작거리는 아기’, ‘호트러진 아기’, ‘잘게 삼긴 아기’, ‘결끄러운 아기’, ‘얇고 얇은 아기’, ‘틈에 끼인 아기’, ‘조민(躁悶)스런 아기’, ‘발촉하운 아기’, ‘암상하운 아기’ 등과 같이 하찮은 사물들이 한없이 가볍게 부유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를 유추할 수 있다.

작가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타인의 아들을 양자로 삼고, 그 타인은 다시 무후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부조리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입후 제도가 야기한 크고 작은 소동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역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입후 제도에 대한 구강의 문제의식은 몰인정성을 고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종법제가 지니는 구조적인 부조리를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셰익스피어가 <사랑의 헛수고>에서 자기 번식적인 언어유희를 통해 ‘단어들은 재치 있는 반짝임만 있을 뿐, 어떤 무게나 실체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확립된 권위와 언어를 무화시킨 것처럼, 겉보기에는 재치 있는 반짝임으로만 보이는 <아기탄>의 언어유희 또한 유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전복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01) 한상우, 앞의 글, 2015, 294면.

102) 종친, 재신, 유현 및 여러 대를 봉사하는 가문 등에서 타인의 장자를 입후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또한 첩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적자인 계후자를 입후하여 가계를 잇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이민정, 앞의 글, 43~46면.) 심지어 타인의 독자까지 입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법률상 금지되었기 때문에 호적까지 위조하여 감행할 정도였다.(정궁식, 앞의 책, 2021, 176면.)

V. 맺음말

처음에는 서로 의미의 연관이 없는 듯이 보였던 동일한 소리를 지닌 두 단어가 겹으로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친연성을 공유하고 있음이 드러날 때, 언어유희는 강력한 시적 언어가 된다.¹⁰³⁾ <아기탄>은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여러 ‘아기’를 가져와 언어유희를 만드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언어적 지위를 가지는 ‘아기’를 활용하고 있다. 즉 ① 명사인 것, ② 명사의 일부로서 재분석한 경우가 아닌 것, ③ 원래 ‘축소’의 파생 접미사에서 온 것, ④ 재분석한 언어 단위, ⑤ ‘아기’를 가져다 붙여 새로운 단어 내지 새로운 표현을 만든 것, ⑥ 분석이 어려운 것 등이 그것이다. 그 방식은 다양하지만 ‘아기’라는 소리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없이 저속한 사물’과 ‘사람의 아기’를 짝짓는 구강의 의도는 비교적 명확하다.

<아기탄>의 언어유희는 당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아기[後嗣]’와, 매우 하찮은 사물 사이의 경계를 무화시키면서 후사인 ‘아기’만이 아니라 집풀‘아기’나 보풀‘아기’ 등도 모두 세상의 보물아기라고 말한다. 이처럼 후사인 ‘아기’와 이들 ‘아기’가 등가적인 존재가 될 때, 역으로 지푸라기, 보푸라기, 실오라기, 현웃 오라기, 신 살구땀기가 없다고 삶이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듯이, 무자(無子)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없는가 하는 전복적인 질문이 가능해진다. 결말부에 오면 ‘아기’뿐만 아니라 아기의 부모도 ‘해오라비’, ‘술지게미’로 회화화된다. ‘아기’, ‘아비’, ‘어미’가 가볍게 회화화되는 작품 속의 사태는 작품 밖의 입후(立後) 문제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입후 제도의 권위를 흔든다.

선행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구강은 <북새곡>에서 복잡한 의식의 단면들을 보여 주었다. 북관민을 경멸하는 한편으로, 말 못 하는 사람으로 치부된 북관민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입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아픔·억울함·고통이라는 감각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¹⁰⁴⁾ 기층민의 참담한 생활 현실에 대한 연민, 탐학한 수령과 이서배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노정에서 목격한 조선 건국자들의 사적을 예찬하고, 유교적 예도에 어

103) Alex Preminger and Terry V.F. Brogan eds., *op.cit.*, p.1005.

104) 최미정, 앞의 글, 299면.

굿나는 지방민의 풍속을 조롱하고, 임금에게 헌수 하는 등, 유교 이념으로 무장한 집권 관료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¹⁰⁵⁾

그 가운데 구강이 환곡의 모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중세 봉건 체제의 폐부를 찌르는 문체의식을 보여 준다. 환곡은 본래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한 제도인데 조선 후기에 부세화(賦稅化)되어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구강이 노정에서 만난 현 누더기를 입은 유랑민은 자기 곡식도 못 바치는 마당에 도망한 이의 신구환(新舊還)¹⁰⁶⁾까지 떠안고, 이를 못 바치면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라 살던 고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에 구강은 “미혹(迷惑)흔 뉴부스(柳府使)와 답답(沓沓)흔 니도호(李都護)는/ 국규(國規)도 중(重)커니와 인명(人命)인들 아니 볼가?/ 백성(百姓) 업는 곡식 바다 그 무어세 쓰라 흐노?”¹⁰⁷⁾라고 탄식한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라에서 거두는 곡식 때문에 백성의 생존이 위협 받는 현실을 목도하고, 백성이 없다면 곡식을 걷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아기탄>은 언어유희로만 이루어진 짧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중세 봉건 국가와 사회를 떠받치는 종법제라는 핵심적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북새곡> 못지않은 문체작이라 볼 수 있다. 종법제를 공고히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입후 제도가 지니는 근본적인 역설은 한 가계를 계승하기 위한 입후가 다른 가계의 후사를 끊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두는 부세(賦稅)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은 체제 모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아기탄>이 <북새곡>처럼 당대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었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기탄>의 언어유희 속에는 소종(小宗)이라는 이유로 친자를 입양 보내고 절

105) 이형대, 앞의 글, 241면; 장정수 역, 앞의 책, 180면.

106) ‘신구환’은 최강현, 『북새곡(北塞曲)』, 『기행가사 자료 선집 1』, 국학자료원, 1996, 202면에서 ‘身救還’으로 풀이했고, 장정수 역, 앞의 책, 186면에서는 ‘신구(新舊) 환곡’으로 해석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12월 17일 기록에 ‘신구(新舊) 환곡’의 뜻으로 ‘新舊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新舊還’으로 해석한다. (<https://www.krpia.co.kr/viewer/open?highlight=%e6%96%b0%e8%88%8a%e9%82%84&plctId=PLCT00006569&nodeId=NODE06495391&medald=MEDA06639405>)

107) 최강현, 앞의 책, 202면.

절히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암시되어 있다. 재치 있는 반짝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아기탄>의 언어유희는 입후를 둘러싼 모든 진지한 행위들이 따지고 보면 부질없는 일임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사대부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기를 둘러싼 모든 소동이 부질없음을 말하기 위해 ‘아기’라는 말을 무한히 반복하여 후사인 ‘아기’를 중요시 여기는 내면의 모순된 심리를 드러낸다. 또한 아기 부모를 “희올아비”와 “술취어미”라고 부르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자조적인 슬픔이 드러나기도 한다. 아무리 가볍고 어처구니없는 말로 부정하려고 애써도 ‘아기’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아기탄>은 유교 사회의 근간을 흔들 만한 전복적인 문제 의식을 지녔지만, 동시에 그 체제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대부 작가의 자기모순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아기탄>에 나타난 언어유희를 작가 구강의 창작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폈다. 구강의 『북새곡』은 능성구씨 후손들 사이에 심씨 부인(1756~1839)의 소작으로 전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집안의 부녀자들을 위해 창작된 작품이다.¹⁰⁸⁾ 그렇다면 <아기탄>을 읽는 부녀자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을지를 당대 입후 문화와 관련하여 추론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아기탄>을 비롯한 구강의 다른 가사 작품들과 <북새곡> 간의 주제적 공통점을 탐색하는 논의도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08) 최미정은 <북새곡>이 집안의 부녀 독자에게 그가 수행한 암행어사라는 특별한 임무의 안팎을 보여 주려는 목적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최미정, 앞의 글, 206면.)

참고문헌

1. 자료

- 김수봉 역·주해, 『성현공숙열기』 제1권, 한국학술정보, 2010.
- 김진세 편, 『완월회맹연』 제3권, 서울대출판부, 1988.
- _____ 편, 『완월회맹연』 제6권, 서울대출판부, 1989.
- 나관중, 모종강 정리, 송도진 역, 『(정사 비교 고중 완역판) 삼국지』 제2권, 글항아리, 2019.
- _____, 모종강 정리, 송도진 역, 『(정사 비교 고중 완역판) 삼국지』 제4권, 글항아리, 2019.
- 능성구씨대동보편찬위원회, 『능성구씨세보』 제4권, 능성구씨대종회, 1986.
- _____, 『능성구씨세보』 제5권, 능성구씨대종회, 1986.
- 완월회맹연 번역연구모임, 『현대역 완월회맹연』 제1권,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2.
- 윌리엄 셰익스피어, 신경옥 역, 『사랑의 헛수고』, 전예원, 1989.
- _____, 최종철 역, 『맥베스』, 민음사, 2004.
- 박요순, 『한국고전문학 신자료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2.
- 서봉식, 『『북새곡』 해제』, 『향토연구』 제10집, 충남향토연구회, 1991.
- 임동권 편, 『한국민요집』 제1권, 집문당, 1961.
- _____ 편, 『한국민요집』 제2권, 집문당, 1974.
- 최길용 교수, 『(교감본) 엄씨효문청행록』 제1권, 학교방, 2016.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제4권(옛말과 이두), 어문각, 1992.
- Shakespeare, William, Mowat Barbara A. and Paul Werstine eds., *Love's Labor's Lost*, Washington, D.C.: Folger Shakespeare Library, pp.150~151.

2. 단행본

- 장정수 역, 『조선 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21.
- 정공식,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제3권, 지식산업사, 2005.
- Elam, Keir, *Shakespeare's Universe of Discour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Mahood, Molly. M., *Shakespeare's Wordplay*, London & New York: Mathen, 1979.
- Preminger, Alex, and Brogan Terry V.F. eds.,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Ulmann, Stephen, 남성우 역, 『의미론: 의미과학입문』, 탑출판사, 1988.

3. 논문

- 강전섭, 『남호 구강의 『북새곡』에 대하여』, 『한국학보』 제18권 4호, 일지사, 1992, 187~207면.
- 구분관, 『축소 접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제34집, 국어학회, 1999, 109~141면.
- 구선정, 『조선 후기 여성의 윤리적 지향과 좌절을 통해 본 가문의 정의』, 『고소설연구』 제47집, 한국고소설학회, 2019, 5~40면.
- 구현정, 『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 제248집, 한글학회, 2000, 159~184면.
- 권오숙, 『햄릿의 말놀이 연구』, 『셰익스피어 비평』 제38권 1호,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2, 5~24면.
- 김은주·전정미, 『한국 산속(産俗)의 변화 과정 탐색을 통한 유아교육적 의미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3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2, 203~232면.
- 박영희, 『18세기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갈등의 의미-〈성헌공숙열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187~218면.
- 박요순, 『구강의 <북새곡> 특성고』, 『어문연구』 제25집, 어문연구회, 1994, 209~228면.
- 심미현, 『『사랑의 헛수고』에 나타난 남성 언어의 허구성과 유보된 해피엔딩』, 『경성대학교 인문학논총』 제13권 1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67~91면.
- 이민정, 『조선 후기 가계계승 연구-입후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수진, 『루이스 캐럴의 언어게임-앨리스 이야기를 중심으로』, 『근대영미소설』 제12권 1호,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2005, 97~118면.
- 이은영, 『한문 산문에 투영된 어머니-18세기 팔모(八母) 복제(服制) 담론과 어머니 관련 글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114~151면.
- 이창기,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제106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105~137면.
- 이현주,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엄씨효문청행록〉, 〈성헌공숙열기〉, 〈원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2집, 한민족어문학회, 2012, 451~474면.
- 이형대, 『<북새곡>의 표현방식과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227~256면.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 제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27~178면.
- 정공식, 『조선시대의 가계계승법제』,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2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69~101면.
- 정인숙, 『<만연사>에 나타난 자전적 술희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135~169면.
- 천혜영, 『구강의 가사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최강현, 『북시곡(北塞曲)』, 『기행가사 자료 선집 1』, 국학자료원, 1996, 197~237면.
- 최미정, 『<북새곡>에 나타난 북관의 풍경과 관직자의 감성』, 『한국학논집』 제5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241~304면.
- 한상우, 『조선 후기 양반층의 입후(立後) 양상과 전략적 계자(繼子) 선택』, 『조선시대 사학보』 제73집, 조선시대사학회, 2015, 287~325면.
- _____, 『『계후등록(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의 특징』, 『고문서연구』 제51집, 한국고문서학회, 2017, 189~213면.
- Calderwood, James L., “Love’s Labour’s Lost: A Wantoning with Words”,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Vol.5: No.3, Houston: Rice University, 1965, pp.317~332.
- Culler, Jonathan, “The Call of the Phoneme: Introduction”, Edited by Jonathan Culler, *On Puns: the foundation of letters*, Oxford & New York: B. Blackwell, 1988, pp.1~16.
- Meltzer, Françoise, “Eat Your Dasein: Lacan’s Self-Consuming Puns”, Edited by Jonathan Culler, *On Puns: the foundation of letters*, Oxford & New York: B. Blackwell, 1988, pp.156~163.

4. 인터넷 자료

- 『승정원일기』, 누리미디어, <https://www.krpia.co.kr/viewer/open?highlight=%e6%96%b0%e8%88%8a%e9%82%84&plctId=PLCT00006569&nodeId=NODE06495391&medaId=MEDA06639405>.
-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_top=query&query=%EB%AC%B5%EC%9D%80%EB%B0%AD.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85%B8%EB%9E%98%EA%B8%B0>.
-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www.oed.com/view/Entry/154549?rskey=CmKIMA&result=1&isAdvanced=false#eid>.

The Aspect of Puns in “Agi-tan” and the Writer’s Intention

Ko, Jeonghee · Koo, Bonkwa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spects of puns used in “Agi-tan”(A Lament Song on Babies) and elucidate the writer’s intention. “Agi-tan” was written by the 19th-century Neo-Confucian literati named Koo Gang(具康, 1757~1832). He created numerous puns using homonymy of ‘Agi(baby)’ with various linguistic statuses such as the derivative suffix of ‘reduction,’ reanalyzed linguistic units and new words or expressions created by attaching ‘Agi’ etc.

The writer couplets ‘extremely light and vulgar objects’ like ‘Jippul-Agi’(meaning a strand of a straw) and ‘human Agi(baby)’ based on the commonality of the sound of ‘Agi.’ Through this, he challenges the authority of the adoption system for its artificial resolution for being childless since the Neo-Confucian literati, considered the ‘baby(male heir)’ too critical, had established this system. And he expresses a voice of desperately missing his baby after sending him away for adoption.

However, repeating ‘Agi(baby)’ countless times reveals a contradiction implying acknowledgment of the precious ‘Agi(male heir).’ “Agi-tan” is in line with the writer’s representative work “Buksaegok” revealing the self-contradiction of a Neo-Confucian literati with a subversive reservation about the Neo-Confucian social system.

Keywords: Koo Gang, “Agi-tan”, Pun, Agi(baby, male heir), Adoption System, “Buksaegok”

접수일자: 2023. 3. 31.

심사기간: 2023. 4. 1.~2023. 5. 10.

게재결정: 2023. 5. 10.